

조선시대 경북지역의 효자·효녀·효부 사례분석*

— 『慶尙道邑誌』를 중심으로 —

朴 珠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 II. 『경상도읍지』 인물조의 효자 사례
분석
- III. 『경상도읍지』 인물조의 효녀·효부
사례분석
- IV. 조선시대 경북지역 효자·효녀·효
부 정리의 지역적 특성
- V. 맺음말

www.kci.go.kr

※ 본 연구는 2008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년에 의한 것임.

<논문 요약>

본 연구는 『慶尙道邑誌』에 실려 있는 조선시대 경북지역 41읍의 효자, 효녀, 효부의 사례들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경북지역의 유교윤리의 보급과 지역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먼저 효자들의 사례를 유형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는 斷指 또는 割股, 嘗糞, 吮腫, 施藥, 得魚, 得肉 등을 한 경우, 부모가 호환, 수화재, 도적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죽은 경우, 임진왜란 때 왜적으로부터 부모의 살해나 被虜를 막고자하여 생명을 걸고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해를 당한 경우,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응한 경우, 형제간에 우애가 지극한 경우, 부모 사후 여묘를 3년 내지 6년, 9년 한 경우, 부모 사후 『주자가례』에 따라 상제를 행하거나 가묘를 설치한 경우, 부모상에 추복한 경우, 국상을 당하여 心喪 3년 한 경우, 短喪을 거부하고 3년상을 한 경우, 스승을 위하여 여묘 3년 또는 심상 3년 한 경우, 충효를 행한 경우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이들 사례유형 가운데 부모 생시에는 斷指 효행한 사례가 가장 많고, 부모 사후에는 여묘를 3년 내지 6년 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편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로 갈수록 효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임란 때 발생한 효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순조대에 가장 많이 포상되었다. 그리고 경북지역에 있어서 포상된 효자수가 모두 319건인데 비하여 열녀수는 233건이었다. 따라서 열녀에 비해 효자의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조선왕조는 삼강윤리 가운데 효를 가장 중요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효자들의 가계배경과 신분이 분명하였다. 효자들의 신분을 보면, 士族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평민(군인 포함)과 천민은 모두 약 22%를

차지하여 사족이 3배 이상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포상유형으로는 旌閭 또는 旌門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贈職이 많았다. 증직된 관직으로는 持平(정5품)이 가장 많고 제수된 관직으로는 參奉(종9품)이 가장 많아 주목된다.

한편 효녀와 효부 사례는 전체 효행자 가운데 약 9%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당시 조선왕조 여성에게는 부모에 대한 孝보다는 남편에 대한 烈을 더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여성관을 엿볼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안동 지역이 효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상주지역이었다. 여기에서 경북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인구가 많고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효자가 많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경상도읍지』, 경상북도, 효자, 효녀, 효부, 사례분석, 정려, 지역적 특성

I. 머리말

조선왕조는 삼강윤리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풍속교화를 위하여 태조 원년 7월에 旌表政策의 방침을 밝힌 이후 충. 효. 열의 행적이 있는 자에게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표하였다. 즉 조선왕조 역대 국왕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반드시 전국의 감사들로 하여금 孝子. 順孫. 義夫, 節婦들을 수록 보고하게 하고, 이들에게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인 旌門, 旌閭 또는 요역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復戶, 관직을 하사하는 賞職, 의복이나 물건, 음식 등을 상으로 내려주는 賞物 등으로 포상하였던 것이다. 국가에서는 정표받은 사람들을 『조선왕조실록』과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등의 유교윤리서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와 같은 전국지리지, 읍지 등에 기록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다.

본고는 조선시대 충. 효. 열을 잘 지킨자들 가운데 경북지역의 효행자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효행자들에 대한 사례분석은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의 보급과 그 정착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는데 일조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효자에 대한 연구는 적지않게 이루어졌다. 『효행록』, 『삼강행실도』, 『소학』,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와 같은 교화서를 통한 연구¹⁾와 전국지리지, 읍지 분석을 통한 연구²⁾, 고문서 활용을

1) 하우봉, 「세종대의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효행록』과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7, 1983 ; 이희덕, 「조선초기 유교의 실천윤리에 대한 일고찰」, 『고려유교정치사상의 연구』, 일조각, 1984 ; 김훈식, 「16세기 『이륜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역사학보』 107, 1985 ; 김훈식, 「『삼강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진단학보』 85, 1998 ; 김항수,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 1998 ; 진단학회, 「『삼강행실도』의 종합적 검토」, 제25회 한국고전연구심포지움, 『진단학보』 85, 1998 ; 조광, 「조선조 효인식

통한 연구³⁾가 있었다. 정표정책을 연구하였으며,⁴⁾ 이후에도 계속하여 각 지역별 읍지에 나타난 효자, 효녀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고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경상도 전체 가운데 우선 『경상도읍지』에 나와 있는 조선시대 경북지역 41읍⁶⁾을 대상으로 효자, 효녀, 효부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경북 지역이 양반사족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할 뿐 아니라 ‘鄆魯之鄉’으로 가장 유교화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경상도읍지』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의 효자, 효녀, 효부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여 조선시대 경북지역의 유교윤리의 확산 과정과 지역적 특성 아울러 효행자들의 유교적 삶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효녀, 효부들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유교적 가부장제속에서의 조선시대 여성의 차별적 삶의 일부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경상도읍지』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경상도읍지』는 총 20책으로 순조 32년(1832)에 작성되었으며 경상도의 71읍이 전부 수록되

의 기능과 그 전개』, 『한국사상사학』 10, 1998 ; 김향수, 「조선전기 삼강행실도와 소학의 편찬」, 『한국사상과 문화』 19, 2003 ; 박주, 「정조대 『오륜행실도』 간행보급에 대한 고찰」, 『수춘박영석교수회갑기념논총』, 1992 ;

- 2) 박주,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 국학자료원, 2000 ; 이재두, 「『동국여지승람』의 효행기록과 효인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정주, 「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 孝. 烈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 28, 2007
- 3) 임선빈, 「충청도 대흥, 덕산, 예산 지역의 효행 포장」,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김혁,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 정려 취득과정」, 『장서각』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박주, 「18. 19세기 동래부 영양천씨 집안의 효자 정려 청원과정」, 『사학연구』 85, 2007
- 4)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 5) 박주,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 국학자료원, 2000 ;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 문화』, 국학자료원, 2008
- 6) 여기서 경북지역 41읍으로 대구, 경주, 안동, 성주, 청송, 상주, 永川, 金山, 의성, 영덕, 선산, 인동, 칠곡, 영해, 청도, 경산, 순흥, 개령, 예안, 영일, 장기, 예천, 榮川, 풍기, 자인, 영양, 문경, 진보, 홍해, 함창, 지례, 고령, 현풍, 군위, 의홍, 신령, 비안, 용궁, 봉화, 청하, 하양 지역을 다루었다.

어 있다. 따라서 내용의 수록 범위가 광범위하며, 기재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므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경상도읍지』 이외에 『조선왕조실록』, 16세기의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18세기의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⁷⁾, 16, 17세기에 현존하는 私撰邑誌類 등의 사료를 참고하였다.

II. 『경상도읍지』 인물조의 효자 사례분석

1. 사례분석

효자는 부모 생시에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즐겁게 하였으며, 부모가 병이 들면 斷指, 割股, 嘗糞, 吮腫, 施藥, 得魚, 得肉 등으로 정성껏 치료하였다. 부모가 호환, 수화제, 도적, 왜적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해를 당하였다. 부모 사후에는 여묘를 3년 내지 6년 동안 지켰으며, 여묘를 끝내고 제사를 정성껏 계속 받들었다.

『경상도읍지』 인물조에 보이는 조선시대 경북지역의 효자 행적을 유형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경북지역 효자의 사례유형별 분포

유 형 별	효자수
부모에게 평소에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봉양하며,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는 斷指 또는 割股, 嘗糞, 吮腫, 施藥, 得魚, 得肉한 경우	114(약36%)
부모가 호랑이에게 잡혀가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의 생명을 구하거나 혹은 시체를 빼앗거나 함께 죽은 경우	12(약4%)
화제시에 부모를 구하기 위해 또는 신주를 꺼내고자 불속에 뛰어 들어가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타죽은 경우	5(약2%)

7) 여기서는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1『국역 여지도서』 31~43 경상도 I~X, 경상도 보유 I~ III, 2009 를 이용하였다.

부모가 물에 빠지자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경우	1(0.3%)
강도와 도적의 침입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를 구한 경우	6(약2%)
임진왜란 때 왜적으로부터 부모의 살해나 被虜를 막고자하여 생명을 걸고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해를 당한 경우	19(약6%)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응한 경우	20(6%)
형제간에 우애가 지극한 경우	9(약3%)
부모 사후 여묘를 3년 내지 6년, 9년한 경우	100(31%)
부모 사후 『주자가례』에 따라 상제를 행하거나 가묘를 설치한 경우	7(2%)
부모상에 追服한 경우	6(약2%)
국상을 당하여 心喪 3년한 경우	13(4%)
短喪할 때 단상을 거부하고 3년상을 한 경우	1(0.3%)
스승을 위하여 여묘 또는 心喪 3년한 경우	3(약1%)
충효를 함께 행한 경우	2(약1%)

<표 1>을 보면 조선시대 경북지역 효자의 사례유형 가운데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는 단지 또는 할고, 상분, 연종, 시약, 득어, 득육한 경우가 114건(약 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부모 사후 여묘를 지낸 유형으로 100건(31%)을 차지하였다.

한편 임진왜란 때 왜적으로부터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죽은 효자수는 19건이다. 반면에 임진왜란 때 절개를 지키려다 죽은 경북지역의 열녀수는 51건으로⁸⁾ 열녀가 효자보다 훨씬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 효행 사례의 분포를 수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행한 효행사례가 114건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斷指 58건(18%), 割股 1건(0.3%), 嘗糞 27건(약 9%), 吮腫 2건(약 1%), 施藥 7건(2%), 得魚 12건(4%), 得肉 7건(2%) 등으로 斷指의 비중이 가장 크다. ⁹⁾

8) 박주,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41~42쪽 참조

9) 斷指, 嘗糞, 吮腫, 施藥, 得魚, 得肉의 효행 사례 경우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각각의 유형에 모두 포함시켰다.

먼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린 斷指 효행의 사례 58건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안동의 校奴 卯乙同은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¹⁰⁾ 같은 지역의 金正根은 7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喪을 당하였는데 애모함이 성인과 같았다.¹¹⁾ 성장한 후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보지 않았다.¹²⁾ 집이 가난하여 찬 온돌을 먼저 자신의 몸으로 따뜻하게 한 후 아버지를 모셨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구해 드렸다. 또한 斷指 효행을 하였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순조 32년(1832)에 정려하였다.

상주의 萬戶 李孝遠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에게서 양육되었다. 만호 벼슬을 받았으나 할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만호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극한 정성으로 할머니를 봉양하였다. 할머니가 왜적한테 죽게 되자 종신토록 倭物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斷指 효행하였다. 갑자, 병자난에 또한 扈駕하여 조정에서 장차 탁용하려 했으나 일찍 죽었다. 이에 자손에게 쌀로서 포상하였다.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약으로 쓰는 割股 효행의 경우는 1건으로 안동의 李世傑을 들 수 있다. 이세걸은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할고하여 어머니의 병이 곧 나았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하였다.¹³⁾ 割股는 斷指보다 행하기가 더 어려웠으며,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효행사례이다.

-
- 10) 『영가지』 효자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안동 효자조 133쪽에도 실려있다.
 11) 어린 나이에 喪을 당했으나 哀慕하거나 執喪함이 성인과 같았다는 사례가 적지않게 보인다. 예컨대 안동의 柳元定, 상주의 李慶大, 금산의 白時珩과 崔恒齊, 경산의 蔣海鵬, 영일의 金時相, 榮川의 李惟馨, 영양의 趙儉, 함창의 蔡之瀛, 고령의 金是泗,, 신녕의 河全澈 경우가 그것이다.
 12)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그만 두거나 관직을 그만 둔 효자 사례가 있다. 상주의 李孝遠은 조모를 봉양하기위해 萬戶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상주의 成泰柱는 아버지가 죽자 과거 보는 것을 그만두고 經學에만 힘썼으며 학덕 높은 선비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예천의 朴泰華는 병자후 과거를 폐하였으며, 고령의 崔光道도 일찍 과거를 그만두고 부모 봉양을 했다.
 13) 『영가지』 효자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안동 효자조 133쪽에도 실려있다.

환자의 대변을 맛보아 병의 경중을 살피는 嘗糞의 사례가 27건¹⁴⁾으로 斷指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례 가운데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청송의 權澤萬은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상분으로 병의 경중을 살폈다. 아버지가 외출하였을 때 집에 불이 나서 어머니가 타죽었다. 이후 택만은 생을 마칠 때까지 불에 구운 고기나 더운 밥을 먹지 않았으며 3년동안 여묘하였다. 땀나무를 해서 아궁이에 불을 때고 몸소 부뚜막에서 밥을 지어 바치며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孟宗¹⁵⁾. 王祥¹⁶⁾과 같은 효행으로 섬기니 하늘이 감동해 날아가던 꿩이 떨어지고 물속의 물고기가 밖으로 뛰쳐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단지효를 행함으로써 다시 소생하여 한 나절을 더 살았다.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는 한결같이 어머니의 상 때처럼 여묘살이를 하였다. 이에 영조 때 정려하였다.¹⁷⁾

의성의 향리 李擢英은 17세 때 아버지가 타향에서 죽자 널을 붙들고 수백 리를 운구하여 돌아와 장사지냈다. 어머니는 60세가 되어 두 눈이 모두 멀어 앞을 보지 못하자, 주야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며 몸소 수저를 집어 밥을 드시도록했다. 어머니의 병이 위독해지자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14) 경주의 이의운, 이의징 형제, 안동의 정헌, 배경, 남천두, 김서운, 청송의 권택만, 김범, 상주의 이익화, 조귀협, 성태주, 한필수, 금산의 이상개, 이상필 형제와 김한영, 의성의 이탁영, 영천의 이유형, 자인의 김경복, 고령의 최광도, 신녕의 정억, 대구의 전창항, 전창익, 전창정 3형제와 광기운, 하양의 신희, 비안의 박시홍과 변세린, 청도의 김극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5) 삼국시대 뱃나라 江夏의 효자이다. 겨울에 숲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즐기는데 죽순이 없음을 슬피 탄탄하자 홀연히 눈 속에서 죽순이 나타났다고 한다.

16) 西晉 때의 효자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어했을 때 얼음위에 누워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 얼음을 깨고 잉어 두 마리를 얻은 고사가 있다.

17) 『경상도읍지』 안동 효자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청송 효자조 102~103 쪽에도 실려있다.

효자 권택만의 여종 是娘은 주인집 불길을 무릅쓰고 여주인(권택만의 母)을 업고 나오다가 함께 타죽었다. 그리하여 숙종조에 忠婢로서 旌闈되었다.

간절히 빌었으며, 천 리를 멀다않고 의원을 맞이하여 약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병이 심해져 상분하였고 슬퍼함이 예를 넘었다. 한 칸의 집을 지어 감히 祠宇라 하지않고 이름을 慕先堂이라 일컬었다. 임진왜란 때 싸움터에 나가 왜적을 정벌한 기록이 담긴 『征蠻錄』을 남겼다.

대구의 衞昌恒은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아우 衞昌益과 함께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다. 부친상을 당하자 여묘하며 소리내어 슬피울면서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지냈다. 관찰사 李箕鎭이 나라에 보고하여 형에게는 호조좌랑을 추증하고, 동생에게는 복호하였다.¹⁸⁾

환자의 종기를 빨아 독을 빼는 吮腫의 경우는 2건으로 金是泗와 韓必壽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고령의 金是泗는 점필재 金宗직의 7세손이다. 나이 9세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마치 어른처럼 한결같이 가슴을 두드리며 땀을 하였다. 작은 표주박 하나를 벽위에 걸어 놓고 조석으로 죽그릇으로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등에 악성 종기가 생기자, 입으로 독한 고름을 빨아내니, 곧바로 그 효험이 있었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슬퍼함이 절도를 넘어 마침내 병에 걸려 어린 나이에 일어나지 못했다.¹⁹⁾ 어린나이의 그의 효성은 옛 사람의 경우에서도 보기 드문 바였다. 순조 21년(1821)에 持平을 추증하였다.²⁰⁾ 상주의 韓必壽는 韓克昌의 증손이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糞糞 후 또 吮腫하였다. 이에 복호하였다.

施藥의 경우는 모두 7건²¹⁾이다. 이 가운데 안동의 李昌葉의 경우 아

18)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대구 효자조 133쪽과 『대구읍지』 210쪽에도 실려있다.

19) 상을 치르는 동안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례가 적지않게 보인다. 영친의 손석후, 의성의 신원록과 박윤주, 경주의 이익운, 의의정 형제 등을 들 수 있다.

20)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고령 효자조 279쪽에도 실려있는데, 영조 5년(1729)에 持平을 증직한 것으로 나와있다.

21) 경주의 이경한, 이경호, 이경택 3형제, 안동의 이창엽, 상주의 성희징, 금산의 김이경, 의성의 신휴석, 예안의 류식, 영양의 조녕 등의 경우이다.

버지가 일찍이 천둥소리를 두려워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릴 때마다 아버지의 묘를 안고 호곡하다 천둥소리가 그친 뒤에야 그만두었다. 어머니가 급성 전염병인 丹毒에 걸리자 우황을 구하러 길을 나섰다. 府城 문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황을 꺼내어 건네주며 말하기를, “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신인이 나타나 내일 효자가 약을 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약값을 치르려고 했으나 받지를 앓았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드리니 병이 곧 나았다. 그 후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여묘 3년 동안 한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²²⁾ 그리고 상복을 벗은 뒤에는 거친 밥만 먹으며 3년을 더 지냈고 부모 묘를 함장한 후 비로소 고기를 먹었다. 이에 持平을 추증하였다.

예안의 柳軾은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10년 동안 직접 약을 달이며 돌보았는데, 허리띠를 풀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슬퍼함이 예를 넘어 몸이 야위었다. 3년상을 마치고서도 그대로 거친 밥만 먹으며 3년을 더 지냈다. 모친상을 당하자,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상을 전과 같이 하였다. 영조 13년(1737)에 호조좌랑을 추증하였다.

영양의 趙寧은 효자 趙儉의 손자이다. 아버지의 병이 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 의원을 구하고 갖은 약을 써보는 등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꿈에 홀연히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너는 芬薺草를 약으로 써 보았느냐? 이것만 먹으면 틀림없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때는 한 겨울로 온 산에 눈이 가득 쌓여 분제초를 구할 만한 땅이 없었다. 그런데 절벽사이에서 분제초를 발견하여 캐어 돌아와 약으로 드리니 아버지의 병이 과연 나았다. 이에 영조 13년(1737)에 복호하였다.

22) 3년 동안 여묘생활하면서 한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경주의 김응벽, 김응규, 김응정 3형제, 안동의 김한백, 류원정, 이창엽, 김시좌, 권질, 성주의 박구 등이 그들이다. 심지어 풍기의 이원정은 6년동안, 성주의 김방계는 9년동안 여묘하면서 한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得魚, 得肉의 사례는 효자의 지극한 효성으로 하늘이 감동하여 일어난 기적의 사례와 중복이 된다.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대개 물고기나 꿩고기 등을 먹고 싶어하는데, 그런 경우 효자가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뜨려 물고기를 구하거나 우연히 집안으로 꿩이 날아들어 드림으로써 병을 고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효자의 지극한 효성으로 하늘이 감동한 경우로 20건²³⁾이 있다. 효감으로 물고기, 잉어, 꿩, 사슴, 비둘기, 노루, 오리, 수박, 송이버섯 등을 얻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고기와 꿩을 얻는 사례가 가장 많이 보인다. 이들 사례의 경우 일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효행 사례들이 적지않다. 꿈속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 주인공의 효심에 감복하여 무언가 도움을 주거나 일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현상들이 효심이 깊은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이런 孝感動天의 사례들은 교화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생성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주의 朴始淳은 효자 朴信孫²⁴⁾의 후손이다. 날아가던 꿩이 부엌으로 스스로 들어왔다. 그리고 겨울에 채소가 새싹을 틔우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持平을 추증하였다.

상주의 진사 金彦健은 어머니가 병에 걸려 꿩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문득 올빼미가 꿩을 잡아다 던져주었다. 또 어머니가 노루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다. 산에 올라가 그물을 설치하여 하루 종일 기다려도 노루를 잡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장차 그물을 거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루가 나타나 그물에 걸리는 기이함이 있었다. 이에 감찰을 추증하였다.²⁵⁾

23) 경주의 김두망, 안동의 김구성, 김한창, 성주의 홍계현, 박시순, 청송의 권택만, 상주의 임성무, 장복례, 김언건, 성호장, 홍도운, 금산의 정선행, 의성의 권호인, 순흥의 황호, 개령의 이영진, 고령의 오선기, 군위의 박약지, 용궁의 반충, 봉화의 금홍달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4)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성주 효자조 155쪽에 의하면 박신손은 判尹 朴可權의 손자이다. 뛰어난 효자라는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主簿에 임명되었다.

25) 『상산지』 인물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 효자조 89쪽에도 실려있다.

안동의 金九成은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5월에 수박을 먹고 싶어 했다. 구성은 아홉번 들에 나가 호읍하니 문득 매우 큰 수박 한 통이 발 가운데 자라나 있어 그것을 따다 드렸다. 또 6월에는 송이버섯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썩은 소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송이버섯 10여개를 따다 아버지에게 드렸다. 사람들이 모두 성효의 소치라 하였다. 영조 13년(1737)에 호조좌랑을 추증하였다.²⁶⁾

성주의 洪繼玄은 남양인으로 金孟性의 외손이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山羊을 맛보고 싶어 했으나 얻지 못했는데, 문득 날아가던 꿩이 스스로 들어왔다. 늙어서 모친상을 당했으나 3년 동안 衰服을 벗지않고 몸소 제찬을 드리는데 그 정결함을 다하였다. 하루는 쥐가 제사상에 올린 과일을 더럽혔다. 계현이 밤새도록 꿰어 앉아 반성하며 잘못을 꾸짖었는데, 동이 트자 두 마리의 쥐가 상 밑에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효감이라 일컬었다. 川谷書院의 鄉賢祠에 제향하였다.

金山의 金漢英은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斷指하여 아버지를 소생시켰다. 어머니의 병에는 상분하고 하늘에 간절히 빌어 효험을 보았다. 어머니가 겨울에 가지나물을 먹고 싶어했는데, 뜰 앞에 말라버린 가지에서 갑자기 꽃이 피 열매를 맺었다. 이에 給復하였다.

금산의 鄭善行은 호가 梧亭이다. 일찍이 부모를 봉양할 먹을거리가 떨어지자, 하루는 산에 사는 꿩이 부엌으로 스스로 날아 들어오고 猛虎가 노루를 물어오는 기이한 일이 있었다. 광해군 때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거절하였다. 우암 송시열이 그의 비문에 쓰기를, “이제 살펴보니, 고을 사람들이 거론하는 江革.²⁷⁾ 王祥.²⁸⁾ 薛包²⁹⁾와 같은 효자의 일을 한

26)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안동 효자조 139쪽에는 영조 1년(1725)에 호조좌랑을 추증하였다 라고 실려있다.

27) 後漢 때의 효자로 난을 피하여 어머니를 업고 산중에 달아났을 때 산중의 적이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감히 범하지 못했다는 고사가 있다.

28) 註16) 참조

29) 後漢 때의 효자로 재산을 나눌 때 동생에게 좋은 재산을 주고 나쁜 물건은 자기가 차지했다는 고사가 있다.

몸에 모두 갖추었다. 심지어 혼란한 조정에서도 자신을 깨끗이 지키고 바른 행동으로 본분을 지켰으니, 남들이 미칠 수가 없을 만큼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 하겠다.”라고 했다. 효종 때 典籤을 추증하고 給復했다.

경주의 府吏 金斗望은 어머니가 연로하여 앓을 못보는 병에 걸리자, 두말은 밤마다 하늘에 빌었다. 추우나 더우나 이같이 기도하기를 수십 년을 하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밝아졌다. 사람들은 효감이라 하였다. 이에 정려했다.

의성의 金以鑰는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10년 동안 잠잘 때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 직접 맛있는 음식으로 극진히 봉양하고, 의원에게 약을 묻기 위해 밤중이라도 달려나갔다. 그때 문득 흰 호랑이가 있어 같이 내왕하였다.³⁰⁾ 그리고 아버지가 비둘기 고기를 먹고 싶다 하여 산에 올라가 그물을 펼치니, 문득 비둘기가 어깨에 모였다. 사람들이 효감이라고 생각했다. 감사가 보고하여 곡물을 내렸다.

의성의 權好仁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나이 70세에 직접 물고기를 잡아 드렸다. 집에 사냥개가 있었는데 매일 산야로 갈 때마다 평을 물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효감이라 했다.

군위의 朴約之는 나이 70세에 부친상을 당해 여묘 3년하였고, 그 후 모친상에도 또한 3년동안 여묘하였다. 어느 날 불이 장차 여묘까지 번지려고 하자, 약지는 소리내어 슬피우니 불이 저절로 꺼졌다. 사람들이 효감이라 일컬었다.³¹⁾

경주의 金應璧과 아우 應奎, 應井 3형제는 부친상을 당하여 여묘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별안간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놀라서 여막 밖으로 나왔으나 아

30) 호랑이가 나타나도 효자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길을 인도하거나 같이 내왕하거나 여묘 곁에서 보호했다는 기이한 사례가 보여 주목된다. 예컨대 안동의 권도인, 성주의 이만경과 성서, 상주의 염행검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군위 효자조 527쪽과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군위 효자조 171쪽에도 실려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나이가 17세로 나와있다.

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에 또 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여기고 신주를 안고 다 함께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조금 있다가 여막 북쪽 산이 무너져 내려 여막과 무덤을 덮쳤다. 또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개 이름을 ‘神春’이라고 하였다. 개의 목에 편지를 매달아 세 형제의 집의 소식을 전하였다. 3년상을 마친 후에도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옷을 깨끗이 차려 입고 사당에 가서 참배드리는 일을 종신토록 그만두지 않았다. 이에 정려하였다.³²⁾

집에 불이 나자 부모 또는 신주를 구하기 위해 불에 뛰어들어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타죽은 경우가 5건³³⁾이며, 부모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어 함께 죽은 경우가 1건이다. 불속에서 신주를 안고 나오다 타죽은 효자를 정려한 사례는 崇祖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선 후기 가문중시를 엿볼 수 있다. 神主는 조상을 대신하는 상징물로 그야말로 소중하게 간주했다.

경주의 천인 文菴卍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미처 염도 하지 못했는데, 집에 불이 나자 불길을 무릅쓰고 곧장 들어가 시신을 꺼안고 죽었다. 이에 정려하였다.

안동의 金信鑠은 아버지가 광질에 걸렸는데, 신탁이 집을 나간 사이에 불이 났다. 갑자기 신탁의 마음이 움직여서 집으로 돌아오니 집이 불에 타고 있었다. 신탁은 불속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를 업고 나왔다. 여러 방법으로 약을 시도하여 아버지를 소생케 하였다. 그러나 화독의 상처가 커서 스스로 먹을 수가 없었다. 낮에는 힘을 다해 치료하고 밤에는 성심으로 기도하기를 10여년이었다. 불행히도 신탁이 먼저 죽었다. 순조 1년(1801)에 給復하였다. 상주의 양인 朴善間은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자 10년간 정성껏 봉양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

32) 『명종실록』 권27, 명종 16년 5월 경술조와 『동경잡기』 효행조 그리고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경주 효자조 175쪽에도 실려있다.

33) 경주의 문인질금, 안동의 김신탁, 상주의 박선간, 영천의 권목, 영일의 강덕우 경우를 들 수 있다.

가 온몸이 불편해 밖으로 피할 수 없었다. 선간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마침내 父子가 함께 타죽었다. 이에 정려하였다.

永川의 權穆은 文節公 權仲和의 9세손이다. 64세 때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문득 집에 불이 일어나서 그 불길이 가묘와 어머니의 신주를 모신 靈幄에까지 퍼졌다. 穆은 뜨거운 불길을 무릅쓰고 먼저 사당에 들어가 신주를 받들고 밖으로 나왔다. 또한 영악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의 신주를 품에 안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죽었다. 가족들이 불을 끄고 그의 시신을 찾아보니, 상복이 모두 불탄 상태였는데 신주만은 품 안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경상감사와 암행어사가 이 일을 나라에 알려 景宗 4년(1724)에 정려하였다. 영일의 姜德佑는 집에 불이 나자 불속을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구하고 자신은 타죽었다. 이에 정려하였다.

얼음 속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경우가 1건 보인다. 안동의 韓大福의 경우 아버지가 이웃마을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얼음속에 빠졌다. 이웃사람들이 빨리 대복에게 알리자, 대복은 급히 달려나가 아버지가 빠진 얼음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대복은 아버지를 꺼안고 죽었는데 그 모습이 산 사람 같았다. 정조 18년(1794)에 給復하였다.

부모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부모의 생명을 구하거나 혹은 시체를 빼앗거나 또는 함께 죽은 경우가 12건³⁴⁾이다.

호랑이가 효행사례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 호랑이가 우리나라 생태환경에서 가장 많이 서식한 동물 가운데 하나로서 당시 호랑이의 피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랑이는 효행사례 뿐아니라 전설이나 민담, 민화의 산신도에도 자주 등장함으로써 호랑이가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하의 李元三은 한밤중에 어머니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자, 손에 칼은 없고 다만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 리 길을 호랑이의 꼬리를

34) 경주의 김운손, 안동의 이맹금, 성주의 개돌.개복 형제, 청송의 김금죽과 이애일, 의성의 권보국과 김운산, 영혜의 김덕봉, 영일의 김인학, 신녕의 서일상, 청하의 이원삼의 경우가 그것이다.

잡고 허리를 치면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 내 어머니를 죽이겠는가. 내가 장차 너를 죽이겠다.” 하고 호랑이와 싸울 때 어머니가 호랑이한테서 벗어났다. 어머니가 호랑이한테서 벗어났음을 알고 비로소 어머니를 업고 돌아왔다. 성심으로 어머니를 구호하고 봉양함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순조 14년(1814)에 정문 급복하였다.

신령의 徐日祥은 양인 徐莫同의 아들이다. 12세 때 형 徐正男과 산에 올라가 땀나무를 구하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튀어 나와 정남을 물었다. 日祥이 호곡하고 낫을 휘둘러 곧바로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치자, 호랑이가 물고 있던 정남이를 놓고 가버렸다. 마침내 형을 부축해 돌아와 살아났다. 숙종 26년(1700)에 경상감사가 나라에 보고하여 급복하였다.

의성의 金允山은 겨우 10세 때 아버지와 함께 들녘에 나갔는데, 호랑이가 아버지를 물었다. 윤산이 낫을 들고 호랑이를 쫓아가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니, 호랑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 이에 정려하였다.

성주의 私奴 介矰과 아우 介卜이 산에 올라가 땀나무를 하는데, 문득 큰 호랑이가 나타나 介矰를 물었다. 아우는 낫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호랑이와 싸웠다. 이에 호랑이가 형을 놓고 개복이를 물어 죽이니, 형 개돌이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호랑이를 쳐서 동생의 시신을 빼앗아 왔다. 사람들은 그 우애를 칭찬하였다. 영조 12년(1736)에 복호하였다.

영해의 金德奉은 아버지와 함께 산에 들어가 밭을 가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를 물고 가버렸다. 덕봉이 쫓아가며 지팡이로 호랑이를 내리쳤으며, 지팡이가 부러지자 맨손으로 호랑이 목을 눌러 아버지를 빼앗았다. 그러나 호랑이가 도리어 덕봉을 물어父子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에 인조 때 정려하였다.

특히 호랑이가 아닌 소의 위협에서 부모를 구한 사례가 1건 있어 주목된다.

의성의 林基善은 11세 때 아버지가 성난 소에게 부딪히게 되자 놀란 나머지 아버지를 빨리 구하고자 두손으로 소의 뺨을 잡았는데, 소가 더

욱 노하여 돌진하였으나 오히려 농지를 못했고 아버지는 위기를 면하였다. 태수가 듣고 가상히 여겨 『효경』을 하사하여 효를 장려하였다.

강도와 도적의 침입과 관계되는 사례가 6건³⁵⁾이 있다. 이 가운데 경주(자인)의 李承曾과 영양의 吳三省의 경우는 효자라고 해서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적들이 효성에 감동받았다는 사례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인의 진사 李承曾은 상을 당해 3년동안 여묘하면서 한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당시 극악한 도적 八龍들이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그런데 승증의 여묘를 지나다가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여기는 효자가 사는 곳이니 조심하라” 하며 드디어 무기를 거두고 그 곳을 피해서 갔다. 선조 때 정려하였다. ³⁶⁾

영양의 吳三省은 15세 때 강도 수십명이 햇불을 밝히고 갑자기 쳐들어와 아버지에게 칼로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 三省은 혼자 몸으로 아버지를 막아 보호하자 도적들이 칼날로 마구 찔렀다. 온 몸에 6,7군데 칼에 찔렸으나 더욱 아버지를 돌보아 지키며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를 죽이고 내 아버지를 해치지 마라“ 하니 도적들이 이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풀어주니 마침내 父子가 모두 온전하게 되었다. 현종 때 정려하였다.

안동의 邊克泰는 18세 때 강도가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 극태가 칼을 무릅쓰고 크게 외쳐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죽이고 아버지를 상하게 하지 마라” 하고 아버지 등에 몸을 붙이고 좌우로 칼날을 받아 마침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도적이 간 후 극태는 상처의 통증이 심했다. 약의 효험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의 꿈에 붉은 옷을 입은 관인이 문에 들어와 말하기를, “효자를 위해 약을 가져왔다.” 하니 아버지가 꿈에 의해 치료하여 마침내 효험을 얻었다. 정조 21년(1797)에 추증하였다.

예천의 鄭道昌은 문충공 鄭夢周의 후손이다. 16세 때 아버지가 도적에게 살해되자 복수하기로 맹세하였다. 11년동안 상복을 벗지 않았고 아

35) 경주의 이승증, 안동의 변극태, 성주의 정차주, 榮川의 정도창, 영양의 오삼성의 경우를 들수있다.

36)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경주 효자조 175~176쪽에도 실려있다.

내를 맞이하지도 않았으며 생업마저도 돌보지 않았다. 몸소 사방을 샅샅이 뒤져 도적의 무리를 붙잡아서 모조리 죽였다. 현종 때 정려했다.³⁷⁾ 이 경우 아버지를 위해 복수 살인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정려 포상을 받아 주목된다.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부모를 구하려다 함께 해를 당하거나 석방된 경우가 19건³⁸⁾이 있다. 먼저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만났으나 효자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왜적이 석방하여 살아난 경우로 안동의 裴經과 邊中一, 현풍의 郭潔, 郭淸, 郭浩, 郭澗 4형제를 들 수 있다. 안동의 裴經은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음식은 자신이 직접 마련하여 바치고 남에게 대신하게 한 적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裴繼, 裴緬과 함께 어머니를 업고 난을 피하였다. 적의 칼날이 휩박함에 이르자 형제가 어머니를 껴안고 슬피 우니, 왜적이 감동하여 석방하였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상분하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여묘 3년을 하였다. 광해 9년(1617)에 좌랑을 추증하였다.³⁹⁾ 같은 지역의 邊中一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큰할머니 이씨 품에서 자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이씨는 나이가 80세 남짓으로 심한 이질병에 걸린 상태였다. 먼저 큰어머니 김씨를 업어 삼밭에 숨기고 다시 돌아와 큰할머니 이씨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이씨와 함께 죽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왜적들이 효자 변중일을 칭찬하며 가버렸다. 仁祖喪에는 거친 밥만 먹으며 조의를 표했으며 장례를 앞두고 대상을 치루는 날에는 밤새도록 밖에서 북쪽을 향해 통곡을 했다. 이에 정문에 忠孝라고 새겼다. 현풍의 郭潔, 郭淸, 郭浩, 郭澗 4형

37)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榮川 효자조 182쪽에도 실려있다.

38) 경주의 최진간, 정삼효, 안동의 배경, 변중일, 상주의 정홍세, 권응정, 하경휘, 송이희, 송이필 형제, 정일, 고응두, 금산의 정일, 조천민, 개령의 임우춘, 풍기의 안구서, 현풍의 광결, 광청, 광호, 광형 형제, 군위의 김난경, 신녕의 조경운, 용궁의 강여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39)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안동 효자조 134쪽에는 영조 13년(1737)에 佐郎을 추증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제는 安邦의 6세손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아버지를 칼로 해치려고 하자, 4형제가 아버지를 감싸안아 가리며 앞다투어 죽었다. 왜적들 역시 감동하고 불쌍하게 여겨 그 아버지를 풀어주었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했다.⁴⁰⁾

임진왜란 때 왜적으로부터 어머니를 구하려다 모자가 함께 죽은 경우로 상주의 유학 鄭興世와 權應井, 금산의 曹天民을 들 수 있다.

상주의 幼學 鄭興世는 임진왜란 때 형 鄭經世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난을 피하다가 갑자기 왜적을 만났다. 어머니를 등에 번갈아 업고 달리다가 형 경세가 화살을 맞고 먼저 쓰러졌다. 그러자 흥세는 혼자서 힘을 다해 어머니를 막아 보호하다가 힘이 다하여 모자가 함께 해를 당하였다. 이에 광해군 때 主簿를 추증하고 정려하였다.⁴¹⁾

같은 지역의 權應井은 임진왜란 때 어머니를 업고 바위 동굴 속으로 숨었다. 어느 날 갑자기 왜적을 만났다. 이에 돌로 손가락을 쳐 그 피로 “勿害母” 석자를 썼다. 이에 왜적들이 감동하여 풀어주었다. 잠시 후 왜적이 또 쳐들어와 어머니를 장차 칼로 치려고 하자 응정은 자신의 몸으로 어머니 등을 감싸안았다가 母子가 함께 해를 당하였다. 아내 채씨와 딸이 이 광경을 보고 함께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에 정려하였다.⁴²⁾ 금산의 曹天民은 임진왜란 때 어머니가 왜적에게 붙잡히자 天民이 자신의 몸으로 어머니를 감싸 안았다가 모자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정려급복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적에 의해 父子가 함께 해를 당한 경우로 경주의 鄭三孝와 상주의 생원 河鏡輝를 들 수 있다. 경주의 鄭三孝는 鄭襲明의 후손이며 진사 鄭珩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산속으로 피난하여 숨었는데, 왜적이 갑자기 이르러 아버지에게 더욱 가까이 오자, 삼효는 자신의 몸

40)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현풍 192쪽과 『玄風郭氏率禮 十二旌閭事蹟』 20~21 쪽에도 실려있다.

41) 『상산지』 인물조 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 87~88쪽에도 실려있다.

42) 『상산지』 인물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 88~89쪽에도 실려있다.

으로 아버지를 감싸안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칼에 찔려 죽었다. 감사가 보고하여 戶役을 감면하였다.⁴³⁾ 상주의 생원 河鏡輝는 王子 師傅 河洛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왜적의 칼에 다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소리쳐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몸을 피하라“ 했다. 경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를 감싸안았다가 父子가 함께 해를 당하였다. 이에 정려하였다.⁴⁴⁾

왜적으로부터 할머니를 구하려다 함께 살해된 경우로 경주의 崔震幹을 들 수 있다. 경주의 崔臣隣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할머니를 모시고 黃龍山 속으로 난을 피하여 숨었다. 그러나 왜적이 찾아내어 할머니를 칼로 찌르려고 하자, 진간이 왜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구하려다 함께 죽었다. 그의 아내 정씨 또한 목을 매어 스스로 자결하였다. 이에 정려하였다.⁴⁵⁾

3대가 왜적에게 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용궁의 강여성과 어머니 박씨 그리고 아들 찬선이 일시에 살해되었다. 용궁의 강여성은 姜霖의 아들이며 효자 강우의 조카이다. 임진왜란 때 養母 박씨 및 두 아들과 함께 밤을 틈타 달아났는데, 박씨가 왜적에게 붙잡히자, 여성은 적중에 뛰어들었다. 나이 15세의 둘째 아들 찬선은 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왜적에게 잡히는 것을 보고 왜적의 칼에 뛰어드니, 결국 母子孫 3대가 일시에 해를 당하였다. 선조 때 공조참의를 추증하고 정려하였다.

왜적으로부터 부모를 구하고 형제가 같은 날 해를 당한 경우로 宋以誨와 宋以弼 형제를 들 수 있다.

상주의 宋以誨와 宋以弼형제는 主簿 宋亮의 아들이다. 송이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혼자 말을 달려 향교에 나가 다섯 성인의 위패를 물어 두었다. 부모를 모시고 난을 피하다가 왜적이 갑자기 이르러 부모를 핍

43) 『동경잡기』 효행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경주 177쪽에도 실려있다.

44) 『상산지』 인물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 효자조 88쪽에도 실려있다.

45) 『동경잡기』 효행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경주 효자조 176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박하자 아우 이필과 함께 부모 앞을 막아 보호했다. 부모는 화를 면했으나 형제는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 영조 때 정려하였다.

왜적에게 끝까지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다가 참혹하게 살해된 경우로 상주의 진사 鄭鎰과 개령의 林遇春을 들 수 있다.

상주의 진사 鄭鎰은 부모의 상을 당하자, 여묘하면서 죽만 먹고 3년 동안 상복과 허리띠를 벗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협박을 당했는데, 왜적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자 왜적이 화가 나서 그의 배를 갈라 죽였다. 특별히 持平을 추증하였다.⁴⁶⁾

개령의 林遇春은 同知 林芑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왜적의 칼에 잃었다. 정유재란 때 우촌이 왜적의 포로가 되어 부친의 묘 곁에 도착하여 멀리 묘를 바라보고 곡하며 말하기를, “선영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이놈들이 나를 어서 죽이라”고 왜적을 꾸짖었다. 결국 왜적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꾸짖다가 해를 당하였다. 아내 홍씨도 남편의 시신을 껴안고 호곡하다가 왜적이 휘두른 한칼에 남편과 함께 죽었다. 선조 때 정려하였다.

형제간의 우애가 극진한 경우가 9건⁴⁷⁾이다.

경주의 李宜潤은 文元公 李彦迪의 손자이다. 어린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고 文穆公 鄭述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스스로 호를 無添堂이라고 지었다. 계사년(선조 23년, 1593)의 왜란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비록 전쟁 중이었으나 상제에 예를 다하였다. 여러 아우들과 우애가 더욱 돈독하였다. 부친의 병에 상분하였으며, 목욕재계하고 자신이 아버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부친이 임종 때 석류를 맛보고 싶다고 했으나 때는 여름이라 구해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평생 석류를 먹지 않았으며, 석류를 볼 때마다 문득 눈물을 흘렸다. 이에 戶役을 감면하였다.⁴⁸⁾

46) 『상산지』 인물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 효자조 89쪽에도 실려 있다. 『경상도읍지』 금산 효자조에도 실려 있다.

47) 성주의 박신손, 성주의 개돌, 개복 형제, 청송의 민세정, 상주의 김범, 의성의 박장춘, 영천의 우저적, 자인의 이광후, 장후 형제, 고령의 김시락, 청하의 김석경의 경우를 들 수 있다.

李宜澄은 李宜潤의 아우이다. 어려서부터 힘껏 학문을 닦았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다. 한결같이 형처럼 예를 다하여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너무 슬픔에 겨워하다 몸이 상하여 3년상을 마치고 얼마 뒤에 형제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 알려져 호역을 감면하였다.⁴⁹⁾

榮川의 향리 禹底績은 어머니의 병에 斷指하여 소생케 하였다. 아버지의 숙질에 약과 감지로 공양하여 후회가 없었다. 상을 마친 후에는 예로서 제사를 지냈다. 아우 惟績이 일찍 죽자 많은 자녀들을 자신이 양육하였다. 향리에서 효우를 칭찬하였다. 이에 복호하였다.

부모 사후의 효행한 인물은 114건이다. 유형별로는 여묘 100건, 주자가례 또는 가묘 7건, 追服 6건, 短喪거부 1건으로 부모 사후 여묘한 인물이 가장 많다. 부모 사후 『주자가례』에 따라 상제를 행하거나 가묘를 설치한 인물은 모두 7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사족신분과 관련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묘살이는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를 위하여 3년상은 지켜야한다’는 관념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와 단절하고 분묘 곁에서 3년동안 여묘살이를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여묘살이는 고려말 유교식 의례의 하나로 거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주자가례』에는 보이지 않는 예법이였다. 그러나 예법은 후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묘살이는 조선의 사대부계층을 중심으로 보급 확산되었고, 조선시대 상제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였다.⁵⁰⁾

여묘살이할 때의 효행은 무척 다양하였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는 경우, 소금과 간을 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 3년 동안 죽만 먹는 경우,

48) 『동경잡기』 효행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경주 효자조 176~177쪽에도 실려있다.

49) 『동경잡기』 효행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경주 효자조 177쪽에도 실려 있다.

50) 김경숙, 「16세기 사대부가의 喪祭禮와 廬墓生活-이문건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7, 116쪽

눈물로 3년을 보낸 경우,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조석전, 삭망전을 드린 경우, 가묘를 세운 경우, 여묘하면서 한번도 집에 가지 않는 경우, 성묘를 비바람과 추위, 더위에도 그만두지 않는 경우, 흰옷입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 상복과 허리 띠를 벗지 않는 경우, 성묘한 자리에 풀이 나지 않고 구덩이가 파진 경우, 호랑이가 곁에서 보호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부모 사후 『주자가례』에 따라 상제를 행하거나 가묘를 세운 경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안동의 權杠은 權伯宗⁵¹⁾의 후손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상장제사를 『주자가례』를 따라 치렀다. 또한 국상을 당해서는 심상3년을 하였다. 洗馬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았다.⁵²⁾ 현종 11년(1670)에 정려한 후 持平을 추증하였다.

같은 지역의 申暉은 어려서부터 부모 봉양 방법이 한결같이 『소학』에 의지했다. 喪葬시에는 가례에 준거하였다. 여묘 3년에 복을 마치자 차마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종가에 들어갔다. 항상 廟宇를 모시고 죽었다. 순조 32년(1832)에 持平을 증직하였다.

상주의 金熙普는 副提學 金宇宏의 후손이다. 부친의 병에 핍을 생각하니 날아가던 핍이 저절로 집에 떨어져 봉양하였다. 부친상을 만나서는 水漿을 입에 대지 않았고, 거상을 한결같이 『주자가례』에 의했다. 정조 때 持平을 증직했다.

경주의 朱聃壽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나이 66세에 어머니의 상을 만나 3년 동안 죽만을 먹고 상제를 예로서 하였다. 새벽에 가묘에 참배하기를 늙어서도 그만두지 않았다.

5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안동대도호부 효자조와 『영가지』 효자조 그리고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안동 효자조 132쪽에 의하면 권백종은 고려시대 同知中樞 벼슬을 했으며 어머니가 죽자 3년동안 묘를 지켰다. 충목왕1년(1345)에 정려하였다.

52) 효행으로 관직제수가 되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은 효자들이 보인다. 안동의 김시좌와 김정, 경주의 이승증을 들 수 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려 수박을 맛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철이 아니라 구해 드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평생 수박을 먹지 않았다. 감사의 보고에 따라 給復하였다.

순흥의 진사 權得平은 부친이 실명하자 출입할 때 항상 부축했으며, 음식은 반드시 품소 받들었다. 부모가 4일 간격으로 모두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여묘하면서 친히 조석으로 제사상을 올렸다. 대상을 지낸 후에 다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으며, 집안의 가묘에 서조석전을 그만두지 않았다. 연산군 5년(1499)에 정려하였다.

9년간 여묘한 극히 드문 경우가 있다. 성주의 金邦啓는 연이어 부모의 상을 당하고 또 조부상을 당해서 모두 9년 동안 여묘하면서 한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이에 정려하였다. 같은 지역의 李植은 부모가 전염병에 걸려 함께 세상을 떠나자, 조석으로 제사상을 올리고 정성을 다하며 6년을 마쳤다. 이에 정려하였다.

안동의 金士利는 효자 金時佑의 손자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여묘하였다. 3년상을 마치고서도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제사를 종신토록 계속 하였다. 비록 병이 나도 남에게 대신 시킨 적이 없었다. 이에 정려하였다. 대구의 朴得春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6년동안 여묘했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中樞院 錄事 벼슬을 내리고 정려했다.⁵³⁾

같은 지역의 徐時立은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여묘를 하며 조석으로 묘에 절을 올리고 곡을 하였다. 호랑이가 나타난 적이 있었으나 그를 해치지 않았으며, 주변 마을의 사람들 모두 서시립의 효성에 진심으로 감동하였다. 효행을 잘 하였다는 이유로 참봉에 임명되었으며 그 뒤에는 좌랑에 추증되었다. ⁵⁴⁾ 徐達崇은 徐時立의 손자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5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대구도호부 효자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대구 효자조 132 쪽,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기미조, 『대구읍지』 209 쪽에도 실려있다.

54)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대구 효자조 132쪽, 『대구읍지』 209쪽에도 실려있다.

부모를 섬겼으며, 부모를 여의자 6년동안 여묘를 하였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복호하였다. 55)

매일 성묘하러 다닌 길이 하나의 새로운 길 이른바 孝子路가 생긴 경우도 있다. 56) 안동의 假吏 權有望은 관청에 나갈 때는 이웃 친척에게 부모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땀나물을 짊어지고 쌀을 구하여 불을 때서 밥을 해드렸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조석으로 성묘하였는데, 비록 비바람과 추위, 더위에도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그가 다니던 산길이 아주 작은 길이 되었다. 초동과 목동들이 그 길을 가리켜 ‘효자로’ 라고 하였다. 이에 給米의 포상이 주어졌다.

追服 사례가 모두 6건⁵⁷⁾이다. 追服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다시 상복을 입는 것이다.

의성의 趙壽聰과 壽昌 형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50세에 모친상을 만나 여묘 3년하며 한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복을 마치자 부친상에 追服하였고 여묘 또한 3년하였다.

같은 지역의 崔億石은 병자호란 때 아버지 崔榮觀이 종군하여 싸우다가 쌍룡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때 億石은 유복자였다. 자라면서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60년 세월을 하루같이 생전의 아버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다가 환갑인 병자년(숙종 22년, 1696)에 뒤늦게 아버지를 위해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숙종 32년(1706)에 정려하였다.

의성의 향리 吳哲祖는 한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매일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아버지를 위해서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을 종신토록 슬프게 여겨 사람을 대할 때에도 웃지를 않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슬

55) 위와 같음

56) 안동의 권유망과 권성범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57) 상주의 김희정, 의성의 조수충. 조수창 형제와 최억석, 오철조, 대구의 전창항, 전창익, 전창정 3형제, 청하의 이원량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퍼함이 예를 넘었으며 3년 동안 여묘하였다. 환갑인 병술년에 아버지를 위해 추복 3년하였다.

청하의 李元良은 겨우 4세 때 부모를 모두 여의었다. 어른이 되어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늦게나마 추복 6년하였다. 형이 부스럼을 앓아 거의 죽게되자, 뱀회를 만들어 자신이 먼저 한 그릇을 먹어 보고 형에게 먹도록 권하였는데, 형의 병이 곧 나았다. 종종 때 정문하고 추증하였다.

국상을 당하여 心喪 3년을 하거나 거친 밥만 먹거나 菜果 魚肉을 먹지 않은 경우가 13건⁵⁸⁾이 보인다.

예기의 "스승은 五服에 해당하지 않는다"⁵⁹⁾ " 스승을 섬기되 면전에서 직간하는 일도 없고 허물을 숨기는 일도 없어야 하며, 가까이서 받드는 데에도 일정한 한도가 없어야하며, 스승을 위해 죽기에 이르도록 힘쓰며 스승이 돌아가시면 마음으로 슬퍼해야 한다"⁶⁰⁾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스승의 상을 당하면 비록 상복은 입지 않으나 마음으로 슬퍼하는 '心喪 3년'을 수행하는 것이다.

안동의 金時佐는 고려 太師 金宣平의 후손이다. 집이 가난하여 아우 金時佑, 金時良과 함께 직접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 맛있는 반찬을 해드렸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여러 해 동안 머리 빗질을 하지 않고 자꾸만 굵어 부스럼이 되었다. 어머니의 머리에 생긴 이를 자기의 머리로 옮겨가도록 하였다. 또한 등에 난 종기를 주야로 입으로 빨아내어 곧 신통한 효험을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여묘를 했는데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고 죽만 먹으며 한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

58) 안동의 김시좌, 변중일, 권순, 권택만, 성주의 서승운, 상주의 김희정, 고응두, 금산의 예귀주, 경산의 여대익, 예천의 반충, 지례의 김모,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59) 『禮記』, 『學記』

60) 『禮記』, 『檀弓』上 김미영, 『조선후기 상례의 미시적 연구 -정재 류치명의 상례일기 『考終錄』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12호, 253쪽

았다. 나라의 제삿날에는 반드시 목욕재계하고 거친 밥만 먹었으며, 국상에는 심상 3년을 하였다. 이에 정려하고, 명종 때 특별히 참봉을 제수 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⁶¹⁾

안동의 효자 邊中一은 광해군 때 죄아닌 죄에 연루되어 8년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인조반정 후에 석방되어 나라의 은혜에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다. 인조상에 거친 밥만 먹었으며 대상을 치르는 날에는 밤새도록 밖에서 북쪽을 향해 통곡을 했다. 이에 정문하였다.

성주의 徐勝雲은 부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여묘하였으며, 조석전을 묘에서 늙어서까지 폐하지 않았다. 숙종 승하에 3년 동안 거친 밥만 먹었다. 이에 정려했다.

상주의 별시위 金希禎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 뒤늦게 아버지를 위해 道服 3년을 하였다. 모친상을 당해서는 죽을 3년 동안 먹었다. 중종, 인종 두 국상 때 흰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에 정려하였다.⁶²⁾

금산의 芮歸周는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斷指하여 아버지를 소생케 하였다. 아버지가 노루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문득 노루가 스스로 뜰안으로 들어와 죽는 일이 벌어졌다. 매년 국상을 당할 때마다 거친 밥만 먹으며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이에 持平을 추증하였다.

예천의 潘冲은 찰방 潘濡⁶³⁾의 5세손이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여묘하였는데 제물을 반드시 직접 마련하였다. 문득 여막 옆에서 나뭇이 저절로 자라나 그 나뭇을 캐다가 아침 저녁 제사상에 올렸는데, 3년상을 마치자 나뭇이 스스로 말라버렸다. 호를 觀物堂이라 하였다. 중종, 인종, 명종 세 임금 및 문정왕후의 국상 때 거친 밥만 먹으며 3년상을 마쳤다. 효종 때 충성과 효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정려하였다. 용궁의 達溪書院에서 제향하였다. ⁶⁴⁾

61) 『영가지』 효자조에는 중종 35년(1540)에 정려가 내려졌다고 실려있다.

62) 『상산지』 인물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 효자조 87쪽에도 실려있다.

63)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예천 효자조 137쪽에 보면 潘濡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3년간 여묘하였다. 이에 정려하였다.

경산의 呂大翊은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斷指하여 아버지의 수명을 5일 더 연장시켰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여묘 3년 후 萬壽堂을 지어 모친을 봉양함에 효를 다했다. 또한 숙종과 경종의 국상에 壇望을 설치하여 대궐을 향하여 뿔하고 3년 동안 거친 밥만 먹었다. 이에 영조 때 賜復하였다.

短喪을 거부한 사례는 1건이다. 중종반정 이후 연산군 때의 短喪法을 폐지하고 3년상을 회복시켰다. 연산군 때 3년상의 기한을 줄이도록 한 단상법이 엄하였는데, 용궁의 權直衡은 부모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자 단상을 거부하고 6년 동안 상복을 입으며 소금과 나물을 먹지않았다. 이에 정려하였다.

스승을 위하여 여묘 3년 또는 心喪 3년을 지낸 경우가 3건이 있어 주목된다.

의성의 申元祿은 스승 주세봉이 세상을 떠나자 심상 3년을 하였다. 이에 정려하고 參議를 추증하였다. 지례의 尹殷保와 徐鷲은 스승 장지도를 위해 여묘 3년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은보는 같은 고을에 사는 서즐과 함께 張志道에게 학문을 배웠다. 서로 말하기를, “사람은 임금과 스승 그리고 아버지 이 세분을 한결같이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법인데, 우리 스승님은 아들이 없으니 어찌 봉양하라” 하고 좋은 날을 만날 때 마다 반드시 술과 음식을 갖추어 대접했으며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언제나 대접하여 아버지처럼 섬겼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스승을 위해 여묘를 하겠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가련히 여기고 이를 허락하였다. 검은 관을 머리에 쓰고 삼피를 허리에 두르고 묘 곁에서 여묘하며 몸소 불을 때어 제삿밥을 지어 바쳤다. 은보의 부친이 병이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약을 달여 드리면서도 삼피를 풀지 않았다. 부친의 병이 낫자 곧 여막으로 돌아왔다. 한달 남짓 지나 은보는 이상한 꿈을 꾸어 급히 집으

64) 『경상도읍지』 용궁 효자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용궁 효자조 282쪽에도 실려있다.

로 돌아가 보니 부친이 열흘도 못되어 세상을 떠났다. 호곡하고 널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장례를 마치자 부친의 묘 곁에서 여묘를 하였다. 이 때 서늘은 혼자서 스승의 3년상을 마쳤다.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제사상 위에 있던 향그릇을 잃어버렸다. 몇 달간 찾지를 못했는데, 하루는 까마귀가 어떤 물건을 물고 날아와서 묘앞에 놓아두었다. 사람이 가서 보니 잃어버렸던 향그릇이었다. 삭망이 되면 장지도 스승 묘에도 제사상을 올렸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세종 때 두 사람에게 정문과 아울러 관직을 제수하였다.⁶⁵⁾

그 밖에 효를 실천하다가 병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잃은 경우도 8건⁶⁶⁾이나 된다.

상주의 趙龜協은 趙豐胤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嘗糞, 斷指하였다.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자 밤낮으로 직접 아버지의 약을 달이는데, 졸음이 몰려 오면 수염을 뽑아서 경계하였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또 단지효행을 하였다. 장례후 죽을 먹고 너무 슬퍼하여 뼈가 드러나도록 야위었다. 마침내 그 다음 해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때 나이가 24세였다. 어사가 포상을 아뢰어 佐郎을 추증하였다.

永川의 孫錫後는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허리띠도 풀지 않은 채 밤낮 없이 하늘에 기도하였다. 의원을 데려와서 갖은 약을 모두 써 보았으나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도끼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드려서 부친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켰다. 결국 상복을 입던 날에 병으로 죽었다. 이에 정려하였다.

예천의 辛達庭은 어머니가 죽자 여묘하였는데 병이 들어 상을 빨리 마쳤다. 부친이 병들자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退溪가 그의 묘에 글을 남겼다.

65) 『세종실록』 권51, 세종 14년 9월 무진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지례 효자조 244~245쪽에도 실려있다.

66) 영천의 손석후, 의성의 신원록과 박윤주(牧使 以百의 자), 고령의 김시사, 상주의 조귀협, 예천의 신달정, 대구의 허초홍, 경주의 이의운, 이의징 형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대구의 許初興은 14세 때 아버지의 병이 심하여 세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켰으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여묘하였으며 복을 마치자 병을 얻어 죽었다. 영조 48년(1772)에 정려하였다. 그 밖에 경주의 李宜濶(문원공 이언적의 손자), 李宜澄(의윤의 아우)형제, 고령의 金是泗 등을 들 수 있다.

여묘할 때 호랑이가 와서 같이 지키거나 산길을 인도한 사례가 있다.⁶⁷⁾

상주의 廉行儉은 7세에 아버지가 병을 앓자 斷指하여 아버지를 다시 소생케 하였다. 어른이 되어서는 직접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드렸다.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민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직접 얼음속에서 물고기를 구해드렸다. 아버지의 상을 당해 여묘할 때, 호랑이가 와서 지켜준 적이 있었다. 평생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탄복하게 했다. 이에 좌랑을 추증했다.

같은 지역의 蔡澗은 蔡奎夏의 증손이다. 5세 때 아버지가 물속의 거머리에게 물리는 것을 보고 새옷을 찢어 묶었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얼음속에서 잉어를 얻는 기이한 일이 생겼다. 아버지의 병 소식을 듣고 밖에서 밤중이라도 돌아왔는데, 호랑이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일도 있었다. 아버지의 기일을 당하여 正肉을 생각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데, 노루가 스스로 담장안으로 들어왔다. 정조는 판서를 증직하였다.

효자로 인해 동네이름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飛鯉洞, 居廬洞이 그것이다.

안동의 權啓敏은 상을 만나 슬퍼함이 절도를 넘었다. 장례 때 무덤 곁에 토굴을 쌓고 새벽과 밤에 호곡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居廬洞’이라고 이름지었다.

영양의 趙儉은 할머니가 일찍이 병으로 여러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는데, 어느 날 쏘가리회를 먹고 싶어했다. 때는 한겨울이라 얼음을 두드리며 호읍, 문득 한 자나 되는 쏘가리가 얼음을 깨고 튀어나와 할머니께 드리니 할머니의 병이 나왔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그 洞名을

67) 상주의 엄행검과 체경(蔡奎夏의 증손), 성주의 성서(현감 三龜의 손자)와 이만경(贈參議 李廷鐸의 자)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飛鯉洞’이라 하였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목욕재계 하고 밤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빌었다. 사람들이 충효를 다 갖추었다고 하였다. 이에 숙종 3년(1677)에 복호하였다.

경산의 朴弘祿은 그 아내가 조금이라도 부모의 뜻을 거슬리면 그때마다 자기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종아리를 때렸다는 특이한 효행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로 갈수록 효자의 수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상시기가 밝혀진 효자의 수를 보면 조선 전기에 포상된 효자수가 25건인데 반하여 조선 후기에는 110건이 포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읍지』에는 같은 효자의 사례가 지역에 따라 중복되어 실려있음이 주목된다. 예컨대 李承曾의 사례가 경주와 자인지역에 보이고 있으며, 潘冲의 사례는 예천과 용궁지역에 보이고 있다. 柳砲의 사례는 비안과 함창 지역에 보이고 있고, 金爾音의 사례는 榮川과 순흥지역에 보이고 있다. 鄭鑑의 사례는 금산과 상주지역에 보이고 있으며, 權澤萬의 사례는 안동과 청송에 보이고 있다.

2. 신분

다음으로 효자들의 신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조선시대 경북지역 효자의 신분 분포

신분	효자	계
문무유직자	고려 太師의 후예 1명 文元公의 서자 1명 文元公의 손자 2명 文貞公의 후손 1명 文節公의 9세손 1명 文莊公의 종질 1명 文忠公의 후손 1명	61명(50%)

	<p>平靖公의 5세손 1명 文惠公의 8세손 1명 八川君의 10대손 1명 襄烈公의 8대손 1명 佔畢齋의 7세손 2명 府院君 형제 2명 政堂文學의 7세손 1명(정2품) 贈參判의 후손 1명(중2품) 同知的 자 1명(중2품) 贈參判의 6세손 1명(중2품) 判決事의 자 1명(중2품) 觀察使 1명(중2품) 贈承旨의 손자 1명(정3품) 府使 1명(정3품) 牧使의 자 1명(정3품) 禮曹參議 1명(정3품) 贈戶曹參議 1명(정3품) 贈參議의 자 1명(정3품) 直提學의 후손 1명(정3품) 副提學의 후손 1명(정3품) 兵馬使 1명(정3품) 監正 1명(정3품) 司宰副正 1명(중3품) 左副代言 寶文閣 直提學 1명 (정4품) 萬戶 1명(중4품) 郡守 1명(중4품) 郡守의 현손 1명(중4품) 中郎將 1명(정5품) 宣傳官 1명(정3품-중9품) 持平의 후손 1명(정5품) 校理의 손자 1명(정, 중5품) 縣令 2명(중5품) 監務 2명(중5품) 贈義禁府都事 1명(중5품) 縣監의 손자 1명(중6품) 縣監의 자 1명(중6품) 縣監 4명(중6품)</p>	
--	--	--

	主簿 1명(중6품) 察訪 1명(중6품) 察訪의 후손 1명(중6품) 奉事 1명(중8품) 參奉 2명(중9품) 清白吏 10대손 1명 忠順衛의 子 1명 別侍衛 1명	
생원.진사.유학.학생.사인	生員 1명 進士 3명 進士의 자 1명 幼學 1명 學生 1명 士人 2명 士人の 자 2명 義士의 후손 1명 徵士 1명 處士의 증손 1명 司馬합격자 4명	18명(약15%)
향리.역리	鄉吏 6명 鄉吏의 자 1명 驛吏 3명 群吏 1명 縣吏 2명 府吏 1명 吏 1명 記官 1명	16명(13%)
군인	正兵 1명 水軍 1명 騎兵 1명 船軍 1명 船卒 1명	5명(4%)
평민	平民 1명 良人 5명 良人の 자 1명	7명(약6%)
천민	常漢 3명 賤人 1명	14명(약12%)

	賤隸 1명 公賤 1명 校奴 1명 寺奴 3명 私奴 4명	
계		121명

이상에서 효자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신분이 밝혀진 121명 가운데 문 무유직자가 61명(50%), 생원. 진사. 유학. 학생. 사인 등이 18명(약15%), 향리. 역리가 16명(13%), 군인이 5명(4%), 평민이 7명(약6%), 천민이 14명(약12%)이다. 여기에서 사족이 79명(65%)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평민(군인 포함)과 천민은 모두 합하여 26명(약22%)을 차지하여 사족이 3배 이상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노비신분이 8명(校奴 1명, 寺奴 3명, 私奴 4명)이나 되어 노비들에게까지 유교윤리가 보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노비 8명 가운데 5명이 생시 효행으로 斷指 효행을 하였고, 2명은 호환에서 우애를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1명은 사후 효행으로 부친상을 당하여 여묘 3년을 마쳤다.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노비신분으로서 3년상을 지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賤隸의 신분으로 충효를 행한 드문 사례가 보여 주목된다. 경주의 천예 張莫同은 지극한 효성으로 계모를 섬겼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죽만 먹고 지내며 3년 동안 소금과 간장이 들어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3년상을 마친 뒤에 추가로 3년간 상복을 더 입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왜적을 토벌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忠孝를 이룸으로써 이에 정려하였다.⁶⁸⁾

효자들의 가계배경과 신분이 분명하였다. 즉 사족의 경우 자, 호, 본관이 거의 밝혀져 있고, 某의 자, 某의 손자, 某의 증손, 현손, 외손, 몇 세손, 후손 등으로 가계배경이 상세히 밝혀져 있다. 예컨대 문원공 李彦迪의 서자와 손자들, 증참판 鄭彭壽의 후손, 太師 金宣平의 후손, 金時佑

68)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경주 효자조 178쪽에도 실려있다.

의 손자, 權伯宗의 후손, 南暉珠의 후손, 증참판 鄭士信의 6대손, 金孟性의 외손, 지평 呂希臨의 후손, 朴信孫의 후손, 현감 三龜의 손자, 여흥부 원군의 현손, 문정공 申賢의 후손, 蔡奎夏의 증손, 成震丙의 손자와 현손, 부제학 金宇宏의 후손, 韓克昌의 증손, 직제학 洪汝剛의 후손, 문절공 權仲和의 9세손, 문장공 權偉의 종질, 평정공의 5세손, 문혜공 崔善門의 8세손, 李瑀의 현손, 徐思選의 현손, 八川君 鄭珣의 10대손, 점필재 金宗直의 7세손, 郭安邦의 6세손, 청백리 李堰의 10대손, 卞湧의 6대손, 효자 찰방 潘濡의 5세손, 정당문학 姜淮伯의 7세손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한 가문에서 효자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효자 徐時立의 손자 徐達崇, 문원공 李彦迪의 서자 李全仁和 손자 李宜潤. 李宜澄 형제, 金時佐. 金時佑. 金時尙 3형제, 효자 金時佑의 손자 金士利, 효자 朴信孫과 그 후손 朴始淳, 효자 成震丙의 손자 成喜徵과 현손 成泰柱, 효자 孫錫後와 그의 繼子 孫萬祉, 효자 찰방 潘濡의 후손 潘沖, 효자 문충공 정몽주의 후손 鄭道昌, 효자 裴應敷의 손자 裴幼華와 증손 裴晉龜, 효자 卞湧과 그의 6대손 卞世麟, 정당문학 姜淮伯의 7세손 姜우와 姜우의 조카 姜여성, 효자 權晳의 6세손 權光潤 등이 그들이다.

3. 포상내용

조선시대 효자에 대한 포상으로는 정려, 정문, 복호, 상직, 상물 등이 있었으며, 신분의 고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효행을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절차가 까다로워 조선후기가 되면 평민이나 천민은 뛰어난 효행 행적이 있어도 정려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정려와 정문은 예조와 의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이다. 정려의 형태는 마을 입구에 비각처럼 전통양식의 작은 목조 건물을 세우고 기와를 얹은 모습인데, 그 안에 정려기를 나무 현판에 음각했거나 비석을 세워 성명과 그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旌閭를 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인 상직(관직제수, 加資, 贈職 등), 상물, 복호가 적지않게 수반되기도 하였다.⁶⁹⁾

賞職의 경우로는 除職, 加資, 錄用, 贈職 등이 있으며, 賞物의 경우로는 給米, 賜米, 賜肉 등이 있다.

<표 3>조선시대 경북지역 효자의 포상유형 분포

유형	旌閭 (旌門)	復戶	免役	給復	贈職	除授	旌閭 + 除授	旌閭 + 加資	旌門 + 除授	旌門 + 給復
분포수	144	29	1	20	45	11	7	1	2	1

유형	旌門立碑 + 除授	贈職 + 給復	旌閭 + 贈職	旌閭 + 給復	旌閭 + 復戶	減其戶役	給米	賜穀物	賜孝經	賜米肉
분포수	1	5	8	2	2	3	3	1	1	1

유형	旌門+贈職	賞給除授	不明	計
분포수	1	1	59	349

<표 3>을 통하여 포상유형의 분포를 보면 정려와 정문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증직이 많았다. 그리고 복호, 급복, 관직제수 순으로 많았다. 증직된 관직으로는 호조정랑(정5품), 호조좌랑(정6품), 의금부도사(종6품, 종8품), 좌랑(정6품), 참의(정3품), 지평(정5품), 공조좌랑, 정경, 감찰(정6품), 판결사(정3품), 교관(종9품), 주부(종6품), 판서(정2품), 금부도사(종5품~ 종9품), 첨정(종4품), 한성판윤(정2품)

69) 임선빈, 「충청도 대흥. 덕산. 예산지역의 효행포장」,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2003, 169-174쪽 참조 ; 박주,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345-347쪽 참조 ; 이희환, 「조선 말기의 정려와 가문 숭상의 풍조」,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 참조.

등이 보이는데, 이 가운데 持平이 가장 많아 주목된다. 효행으로 관직제수된 사례가 11건이 보이는데, 제수된 관직으로는 참봉(종9품) 4건, 현감(종6품) 2건, 찰방(종6품) 1건, 세마(정9품) 1건, 금부도사(종5품) 1건, 현령(종5품) 1건, 미상 1건 등으로 참봉이 가장 많았다.

Ⅲ. 『경상도읍지』 인물조의 효녀·효부 사례분석

조선사회에 있어서 남성은 孝 윤리만의 실천을 요구받았지만 여성은 孝와 烈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았다. 여성에게 있어 남편에 대한 烈이라는 윤리는 친부모와 시부모에 대한 孝보다 선행하였다. 즉 烈은 여성의 윤리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한 것임에 반하여, 효는 이차적인 것이었다.⁷⁰⁾ 국가에서 정표된 열녀의 수가 효녀, 효부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선사회의 유교적 여성관과 남녀의 차별을 엿볼 수 있다.

1. 효녀

『경상도읍지』에 보면 효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여 그 수가 극히 적은 편이다. 전체 효행자 가운데 4%를 차지할 뿐이다. 당시 조선왕조 여성에게는 부모에 대한 孝보다는 남편에 대한 烈이 더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¹⁾

먼저 효녀의 효행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비명횡사에 대해 복수를 한 효녀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즉 성주의 朴娘 자매, 영해의 申孝娘, 함창의 안씨, 榮川의 昚今, 상주의 尹得宗의 처 김씨가 그들이다.

성주의 朴娘 자매는 文憲公 朴元亨의 후손이며 朴壽河의 딸이다. 아

70)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502-512쪽 참조

71) 박주,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56-75쪽에 의하면 조선시대 경북지역 열녀의 수는 233건이 된다.

버지가 다른 사람과 산소문제로 송사가 벌어졌는데, 營門에서 곤장을 맞고 죽었다. 언니는 아버지의 죽음이 비명횡사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언니는 상대편 소송당사자의 할아버지 묘를 손수 파고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칼에 찔려 죽었다. 동생이 서울로 올라가 복을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니, 나라에서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여 사실을 철저히 밝히도록 했다. 언니의 시신을 살펴보니 죽은 지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얼굴이 마치 살아 있는 듯했다. 보는 자들이 성효가 그 원통함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언니에게 정려하였고, 동생에게는 복호하였다.⁷²⁾ 이 당시에는 산송사건이 많았는데, 이 경우 복수를 꾀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으로써 효녀로 포상되었던 것이다.

영해의 申孝娘은 士人 申斗柄의 딸이다. 아버지가 본 고을의 수령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때 孝娘은 집에 있었다. 비명횡사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맹세코 아버지를 해친 원수와는 같은 하늘아래 살지 않겠다고 했다. 곧 바로 상경하여 복을 쳐서 원통함을 알렸다. 원수는 귀양가던 도중에 죽었다. 후에 경상감사의 보고에 따라 복호하였다.⁷³⁾

함창의 안씨는 左尹 安大勳의 玄孫인 士人 安獻의 딸이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산소문제로 소송을 벌이다가 臺臣의 심기를 거슬려서 장차 헤아리기 어려울 화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14세의 안씨는 다른 형제가 없었는데, 자신이 직접 신문고를 쳐서 원통함을 호소했다. 숙종 때 중국의 緹榮⁷⁴⁾의 故事를 감안하여 특별히 아버지를 석방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효랑을 칭찬하였다. 영부사 金在魯가 按撫使가 되어 그 실상을 듣고 조정에 포상하기를 요구하여 조정에서는 生前 復戶하였다. 후에 안씨는 진사 申重泰에게 시집을 갔다.⁷⁵⁾

72)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성주 효녀조 156쪽에도 실려있다.

73)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영해 효녀조 239쪽에도 실려있다.

74) 緹榮은 漢나라 文帝 때의 효녀이다. 아버지가 형벌을 받게 되자 제영이 몸소 그 벌을 대신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榮川의 是수는 아버지가 연좌되어 거의 죽게 되자, 겨우 13세의 나이로 남북으로 변복하고 관청에 달려가 호소하였는데, 道臣이 가엾게 여겨 布錢을 우대하여 주었다. 그러나 시금은 이것을 받지않고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것을 원하는 바가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 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니 道臣이 狀聞하여 살려주겠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후에 정려하였다.

상주의 김씨는 尹復宗의 처이다. 14세 때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차여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자 김씨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러 소생케 하였으나 다시 목숨이 끊어졌다. 염을 마친 후 김씨는 호읍하며 맨발로 관청에 달려가 소송하였다. 安集使에게 알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이에 復戶하였다. 그 어머니 卞氏 또한 14세 때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여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조선사회는 부모의 원수에 대한 딸의 복수를 용인하고 포상함으로써 효도를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 때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장사지낸 효녀가 1명 있다.

상주의 김씨는 金鑑의 딸이다. 17세 때 아버지가 임진왜란으로 세상을 떠나자 家奴와 함께 밤을 틈타 도망하여 전쟁중에 죽은 시체를 쌓아 놓은 곳에 가서 3일만에 아버지 시신을 찾아 업고 돌아와 장사지내고 碑를 세웠다. 이에 정려했다.

부모가 병에 걸리자 斷指하거나 또는 斷指에다 嘗糞, 割股까지 하여 병을 낫게 한 효녀가 3명이 있다.

상주의 李娘은 李齊華의 딸이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斷指, 嘗糞하여 소생시켰으며, 또 학질에 걸리자 할고하여 병을 낫게 하였다. 이에 복호하였다.

선산의 송씨는 19세 때 어머니가 악질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에 타서 드리니 어머니의 병이 곧 나았다. 이에 정려했다.⁷⁶⁾ 흥해의 野分은 9세 때 斷指하여 병에 걸린 아버지를 치료하였다. 숙종 30년(1704)에 정려하였다.

화재시에 어머니를 구하려다 함께 타죽은 경우로 朴孝娘이 있다.

영해의 朴孝娘은 學生 朴敏學의 딸이다. 17세 때 집에 불이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불속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孝娘은 불길을 헤치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마침내 어머니를 안고 함께 타죽었다. 영조 때 정려하였다.⁷⁷⁾

물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고 자신은 익사한 경우로 예안의 性女를 들 수 있다.

예안의 性女는 私奴 承立의 딸이다. 17세 때 아버지를 따라 냇둑에 갔다가 아버지가 물에 빠지자 성녀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 구해냈다. 아버지는 살아났으나 성녀는 마침내 물에 떠내려가 죽었다. 숙종 때 정려하였다.⁷⁸⁾

결혼했으나 친정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남편과 헤어지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연로한 어머니를 봉양한 양인신분의 효녀가 있어 주목된다.

영양의 村女 今日春은 어머니가 연로하였으나 여러 아들이 모두 죽어 어머니를 봉양할 자가 없었다. 금일춘은 이미 시집을 갔으나 남편에게 다른 데 장가가기를 권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샅 일을 하며 시종 봉양에 힘썼다. 어머니가 99세에 죽자 조석으로 衰經을 하고 곡읍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향인이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복호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과 같이 죽을 먹으며

7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선산도호부 효자조와 『일선지』 인물조,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선산 효자조 206쪽에도 실려있는데, 여기에는 중종 13년(1518)에 정려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77)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영해 효녀조 239쪽에도 실려있다.

78)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예안 효녀조 249쪽에도 실려있다.

3년상을 마친 효녀가 있다.

홍해의 裴斗叱劫은 9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상복을 입고 죽만 먹으며 3년상을 마쳤다. 어른과 다름없이 예법을 다하였다. 영조 3년(1727)에 정려하였다.

위의 효녀 사례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아버지 원수에 대한 딸의 복수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장사지낸 경우 1건, 부모의 병에 斷指효행을 한 경우 2건, 부친의 병에 斷指 뿐아니라 嘗糞, 割股 효행까지 한 경우 1건, 화재시에 어머니를 구하려다 함께 타죽은 경우 1건, 물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고 자신은 죽은 경우 1건, 결혼했으나 친정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으로 돌아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한 경우 1건, 부친상을 당하자 어린나이에 3년상을 마친 경우가 1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분이 밝혀진 효녀는 6명에 불과하다. 즉 文憲公의 후손 1명, 士人의 女 2명, 學生의 女 1명, 私奴의 女 1명, 村女 1명이다. 포상내용으로는 旌閭 받은 효녀가 6명, 復戶 받은 효녀 6명, 포상 불명인 효녀가 2명이었다. 旌閭와 復戶의 비중이 같음이 주목된다.

2. 효부

『경상도읍지』에 의하면 효부 사례도 16건에 불과하여 그 수가 극히 적은 편이다. 전체 효행자 가운데 약 5%를 차지할 뿐이다.

효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시부모를 평소에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거나 병수발을 정성껏 한 효부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안동의 士人 權鳳吉의 처 박씨는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이에 숙종 때 복호하였다. 선산의 私奴 勝立의 처 愛卿은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다. 이에 정려하였다.

자인의 成昌義의 처 裴氏는 시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조석으로 봉양에 힘썼으며, 젊어서부터 시아버지의 병 간호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 경종 때 급복했다. 고령의 士人 朴思全의 처 趙氏는 운순하고 부녀자로서의 행실을 갖추었다. 병든 시어머니를 30년 동안 하루같이 섬김으로써 효부로서 칭찬하였다. 경종 때 給復하였다.⁷⁹⁾ 장기의 許湜의 처 최씨와 許溫의 처 최씨 모두 효행으로 영조 26년(1750)에 정려하였다.

호환사례로서 호랑이에게 물린 시아버지를 구하거나 시신을 수습한 효부가 3명이 있다. 지례의 군사 朴希大의 처 張召史는 1802년(순조 2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召史가 시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은 채 하늘에 통곡하며 5리 남짓을 쫓아가자, 호랑이가 내버리고 갔다. 땅에 떨어진 피와 살을 모두 수습하여 아울러 염습을 하고 장례와 제사를 치렀다. 그 후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였다. 이에 복호하였다.⁸⁰⁾

예안의 林召史는 양인 千正福의 자부이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아버지를 지극한 효로서 섬겼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사람들이 호랑이를 사냥한다는 말을 듣고 지팡이를 겨우 짚고 문밖을 나갔는데 갑자기 호랑이에게 물리게 되었다. 서로 치고 하여 생명이 경각에 있었다. 召史가 가만히 다가가 시아버지 얼굴을 가리우고서 호랑이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쳐 호랑이를 죽여 쓰러뜨리고 시아버지를 구하였다. 시아버지는 상처를 입고 병이 심해지자 召史는 널리 의약을 구하여 시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었으나 召史는 마침내 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정려 급복했다.

진보의 良家女 姜玆女는 겨우 20세 때 시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김을 매다가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리게 되자, 솔선하여 호랑이를 쳐 시아버지를 업고 돌아왔다. 이에 효부로서 정려되었다.

도적의 침입 때 시아버지를 구한 효부가 1명 있다. 이 경우 도적들은 효부의 행동을 의롭게 생각하고 감동하여 시아버지와 효부를 풀어주었다.

경주의 士人 曹英의 처 이씨는 극악한 도적들 수십 명이 횡불을 치켜 들고 갑자기 쳐들어와 시아버지를 칼로 찌르려고 하자, 이씨가 자신의

79)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고령 효부조 280쪽에도 실려있다.

80)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지례 효부조 247쪽에도 실려있다.

몸으로 시아버지를 감싸안으며 말하기를, “나를 죽이고 시아버지를 해치지 말기 바란다” 라고 했다. 도적들이 의롭게 생각하고 두 사람을 풀어주고 집 밖으로 나가며 서로에게 알리기를 “효부의 집이니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다. 이에 정려하였다.⁸¹⁾

불이 난 가묘에 뛰어들어가 신주를 구하고 불속에서 여종과 함께 타 죽은 효부가 있어 주목된다. 인동의 柳氏는 士人 張天經의 처이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집에 불이 나 가묘에까지 번졌다. 류씨는 불길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여러 대의 신주를 안고 타인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마침내 불속에서 타죽었다. 그의 여종 梅香이 류씨를 안고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孝婦와 忠婢가 함께 정려되었다.

시어머니의 병에 糞 效행을 하거나 꿩과 잉어를 구해 드린 효부가 2명 있다.

성주의 김씨는 一善人으로 籠巖 金澍의 후손인 士人 金光潤의 처이다. 효양을 극진히 하였다. 부엌에서 봉양함이 마침 부족하였는데 날아가던 꿩이 스스로 남새밭에 들어왔고, 한 척이 되는 잉어가 마른 우물에서 뛰어올라왔다.

대구의 康氏는 효자참봉 徐時立의 어머니이다. 임진왜란 때 시부모를 모시고 팔공산으로 피난하였다. 시어머니가 병이 나자 糞 效하여 병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다. 시어머니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강씨가 하늘을 부르며 말없이 빌었다. 이윽고 매가 나타나 암꿩을 잡아서 강씨 앞에 떨어뜨리므로 그것을 주어다가 시어머니에게 바치니, 시어머니의 병이 나왔다. ⁸²⁾

시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斷指, 吮腫의 效행을 하고 국상에는 3년동안 상복입고 素食한 양인신분의 효부가 있어 주목된다. 대구의 李召史는 朴仁弘의 처이다. 겨우 8세 때 부모를 모두 여의었는데, 상을 치루이 어른과

81) 『東京雜記』 효행조와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경주 효자조 176쪽에도 실려 있다.

82)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대구 효부조 134쪽과 『대구읍지』 211쪽에도 실려 있다.

똑같았다. 시집을 갔을 때 시부모가 다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러나 남편의 계모인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계모를 더욱 정성껏 모셨다. 무리없이 한밤중에 돌입하여 그녀를 묶어서 갔다. 그녀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몰래 도망쳐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을 막아서는 호랑이가 있었다. 그녀가 호랑이를 향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네 입속으로 들어갈지언정 저 늙은이의 손에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자 잠시 후 호랑이는 그 곳을 떠나갔다. 시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에 타서 드리고, 중기를 앓자 피고름을 빨아 냈다. 국상을 당해서는 흰 상복을 3년동안 입었고, 뒤에 國忌를 당하면 또한 素食을 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와 복호가 내려졌다.⁸³⁾

위의 효부 사례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시부모를 평소에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 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호환사례로서 호랑이에게 물린 시아버지를 구하거나 시신을 수습한 경우가 3건이 보인다. 도적의 침입 때 시아버지를 구한 경우 1건, 불이 난 사당에 뛰어들어가 神主를 구하고 불속에서 여종과 함께 타죽은 경우 1건, 시어머니의 병에 糞 效행과 鯀과 잉어를 드린 경우 2건, 시어머니의 병에 斷指와 吮腫 效행을 하고 국상에 心喪 3년을 한 경우 1건이 보이고 있다.

한편 孝孫女와 忠婢에 대한 사례가 보여 주목된다. 의흥의 有今은 조부가 악병을 얻자 斷指和藥을 함으로써 조부의 병이 나왔다. 이에 정려했다.

청송의 是娘은 忠婢이다. 효자 權澤萬의 婢로서 평상시에 주인을 성심으로 섬겼는데 우연히 주인집에 불이 일어났다. 시랑은 맨몸으로 불을 무릅쓰고 여자주인을 업고 나오다가 함께 타죽었다. 숙종 때 정려하였다. 인동의 효부 류씨의 여종 매향도 불속에서 여주인 류씨를 안고 함께 타죽었다. 이에 정려하였다.

한편 신분이 밝혀진 효부의 신분을 보면 士人の 처 5명, 양가녀 2명,

83) 『국역 여지도서』 경상도 대구 효부조 134~135쪽 에도 실려있다.

사노의 처 1명, 군사의 처 1명, 양인의 자부 1명, 참봉의 모 1명 등이다. 여기에서 士人の 처가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포상내용으로는 정려 6명, 복호 2명, 급복 2명, 정려 급복 1명, 정려 복호 1명, 포상불명이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조선시대 경북지역의 효자·효녀·효부 정려의 지역별 특성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나타난 조선시대 효자의 수를 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도별 효자의 분포수⁸⁴⁾

전거 (편찬연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함경	평안	합계
신증동국여 지승람(1531)	14 (20)	40 (20)	55 (50)	147 (46)	10 (7)	22 (9)	8 (3)	29 (12)	325 (167)
여지도서 (1757-1765)	157 (96)	428 (179)	381 (217)	597 (326)	87 (60)	91 (74)	55 (114)	77 (101)	1873 (1167)
경상도읍지 (1832)				643 (467)					643 (467)

* ()속의 숫자는 열녀의 수치임

위의 자료는 조선전기 관찬 전국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 후기 관찬 전국지리지인 『여지도서』에 나타난 효자수를 통계낸 것이다. 도별 분포를 볼 때 경상도에서 효자가 가장 많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효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경상도 가운데 경북지역내 효자, 효녀, 효부의 지역적 분포를 『경상도읍지』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84) 이정주, 「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충·효·열 윤리의 확산양상」, 『한국사상사학』 28집, 2007, 307쪽 참조 ; 박주, 「조선시대 경북지역의 열녀」,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2727쪽 참조.

<표 5> 경북 지역별 효자, 효녀, 효부 분포수

지역	대구	경주	안동	성주	청송	상주	永川	金山	의성	영덕	선산	인동	칠곡	영해	경도	경산	순흥	개령	예안	영일	장기	예천
효자	20	19	42	19	5	38	5	10	17	0	16	2	2	4	1	7	4	6	3	5	1	10
효녀	0	0	0	1	0	3	0	0	0	0	1	0	0	2	0	0	0	0	1	0	0	0
효부	2	1	1	1	0	0	0	0	0	0	1	1	0	0	0	0	0	0	1	2	2	0

지역	榮川	홍해	풍기	자인	영양	문경	진보	함창	지례	고령	현풍	군위	의홍	신령	비안	용궁	봉화	청하	하양	합계
효자	11	2	2	8	3	2	0	4	6	10	1	4	6	5	4	7	1	4	3	319
효녀	1	2	0	0	1	0	0	1	0	0	0	0	1	0	0	0	0	0	0	14
효부	0	0	0	1	0	0	1	0	1	1	0	0	0	0	0	0	0	0	0	16

<표 5>를 통하여 효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안동 지역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상주지역이었다. 대체로 대구, 경주, 성주, 의성, 선산 지역순으로 많은 효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경북지역내에서도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 효자가 많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효녀의 사례는 모두 14명이 보인다. 즉 상주가 3명으로 가장 많이 보이고 영해, 홍해가 각 2명, 선산, 예안, 영천, 영양, 함창이 각각 1명씩이다. 효부의 수는 모두 16명으로 대구, 영일, 장기가 각각 2명, 안동, 경주, 성주, 선산, 인동, 예안, 자인, 진보, 지례, 고령이 각각 1명씩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선산, 예안에서는 효녀, 효부 모두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효녀, 효부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북지역의 효녀, 효부의 수를 모두 합하면 30명으로 전체 효행자의 약 9%에 불과하다. 반면에 경북지역의 전체 열녀수는 233명이나 된다.⁸⁵⁾이것은 조선 유교사회에 있어서 여성에게는 삼강윤리 가운데 부모에 대한 효보다는 남편에 대한

85) 박주, 「조선시대 경북지역의 열녀 사례분석 - 『경상도읍지』를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13, 2004, 45쪽.

렸을 훨씬 더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여성관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저락과 남녀 차별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경상도읍지』 인물조에 나타난 조선시대 경북지역 41읍의 효자, 효녀, 효부 모두 349건의 사례들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경북지역 효자들의 사례를 유형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1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斷指 또는 割股, 嘗糞, 吮腫, 施藥, 得魚, 得肉 등을 한 경우, 부모가 호랑이에게 잡혀가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의 생명을 구하거나 혹은 시체를 빼앗거나 함께 죽은 경우, 화재시에 부모를 구하기 위해 또는 신주를 꺼내고자 불속에 뛰어들어가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타죽은 경우, 부모가 물에 빠지자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경우, 강도와 도적의 침입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를 구한 경우, 임진왜란 때 왜적으로부터 부모의 살해나 被虜를 막고자하여 생명을 걸고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해를 당한 경우, 효성지극함에 하늘이 감응한 경우, 형제간에 우애가 지극한 경우, 부모 사후 여묘를 3년 내지 6년, 9년 한 경우, 부모 사후 『주자가례』에 따라 상제를 행하거나 가묘를 설치한 경우, 부모상에 追服한 경우, 국상을 당하여 心喪 3년한 경우, 短喪을 거부하고 3년상을 한 경우, 스승을 위하여 여묘 3년 또는 심상 3년한 경우, 충효를 행한 경우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이들 사례유형 가운데 부모 생시에는 斷指 효행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모 사후에는 여묘를 3년 내지 6년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도적과 왜적이 효자의 효성에 감동받아 해치지 않고 도리어 풀어준 경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그만두거나 관직을 그만 둔 경우, 상을 치르는 동안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경우, 여묘할 때 호랑이가 나타나 효자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여묘를 같이 지키거나 산길을 인도한 경우, 효자로 인해 동네이름이 지어진 경우, 매일 성묘하러 다닌 길이 하나의 새로운 길 이른바 孝子路가 생긴 경우, 부모의 원수에 대해 복수 살인을 한 경우 등도 있었다.

둘째,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로 갈수록 효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포상 시기가 밝혀진 경우 임란 이전에 포상된 효자 사례가 25건인데 반하여 임란 이후에 포상된 효자사례는 110건이다. 특히 임진왜란으로 인해 발생한 효자가 많았으며, 『경상도읍지』가 편찬된 순조대에 효자가 가장 많이 포상되었다.

셋째,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효자 徐時立의 손자 徐達崇, 효자 李彦迪의 서자 李全仁과 손자 李宜潤, 李宜澄 형제, 효자 金時佑의 손자 金士利, 효자 鄭夢周의 후손 鄭道昌, 효자 潘濡의 후손 潘冲, 효자 權晔의 6세손 權光潤 등 다수가 보인다. 그리고 효자들의 가계배경과 신분이 분명하였다. 士族의 경우 字, 號, 本貫이 거의 밝혀져 있고, 某의 자, 某의 손자, 某의 증손, 현손, 외손, 몇 세손 등으로 가계배경이 상세히 밝혀져 있다.

넷째, 효자들의 신분을 보면, 신분이 밝혀진 121명 가운데 士族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평민(군인 포함)과 천민은 모두 22%를 차지하여 사족이 3배나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포상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旌閭와 旌門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贈職이 많았다. 증직된 관직으로는 持平(정5품)이 가장 많고, 제수된 관직으로는 參奉(종9품)이 가장 많아 주목된다.

여섯째, 효녀와 효부 사례는 모두 30건으로 전체 효행자 가운데 약 9%에 불과하다. 조선 유교사회에 있어서 여성에게는 삼강오리 가운데 친정부모와 시부모에 대한 孝보다는 남편에 대한 烈을 훨씬 더 강조하여 포상함으로써 유교적 여성관과 남녀의 차별을 엿볼 수 있다.

일곱째, 지역별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안동 지역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상주지역이다. 여기에서 경북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인구가 많고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효자가 많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하우봉, 「세종대의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효행록』과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7, 1983
- 이희덕, 「조선초기 유교의 실천윤리에 대한 일고찰」, 『고려유교정치사상의 연구』, 일조각, 1984
- 김훈식, 「16세기 『이륜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역사학보』 107, 1985
- 지두환, 「조선초기 주자가례의 이해과정-국상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8, 1982
- 고영진, 「15. 16세기 주자가례의 시행과 그 의의」, 『한국사론』 21, 1989
- 김훈식, 「삼강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진단학보』 85, 1998
- 김향수,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 1998
- 고두행, 「동국여지승람 효자, 열녀조의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0
- 김경진,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효녀, 절부에 관한 소고 - 태조실록~중종실록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16, 1977
- 진단학회, 「삼강행실도의 종합적 검토」, 제25회 한국고전연구심포지움, 『진단학보』 85, 1998
- 조 광, 「조선조 효인식의 기능과 그 전개」, 『한국사상사학』 10, 1998
- 김경숙, 「16세기 사대부가의 상제례와 여묘생활 -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7, 1998
- 주희(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 김문택, 「상례와 시묘살이」,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
-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실행과 그 성격」, 『한국학보』 98, 2000
- 마크 피터슨 지음, 김혜정 옮김, 『유교사회의 창출-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 일조각, 2000
- 이재두, 『동국여지승람』의 효행기록과 효인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정주, 「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烈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 28, 2007

- 김미영, 「조선후기 상례의 미시적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12, 2008
- 김미영, 「혈통과 사회적 위세에 따른 종가의 위상」, 『역사민속학』 2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김항수, 조선 전기 삼강행실도와 소학의 편찬, 『한국사상과 문화』 19, 2003
-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 변주승, 「여지도서의 성격과 도별 특성」,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2006
- 이희환, 조선 말기의 정려와 가문 숭상의 풍조,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
-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 박주,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 국학자료원, 2000
- 최운진, 「16,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읍지」, 『전북사학』 17, 1994
- 양보경, 「조선 중기 사찬읍지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 위원회, 1998
- 권순성, 「조선시대 강릉지방의 정표자 분석」, 『영동문화』 8, 2001
- 이광규, 「효자」,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 정구선, 「조선전기의 효행천거제」, 『경주사학』 11, 1992
- 임선빈, 「충청도 대흥, 덕산, 예산 지역의 효행포장」,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김 혁,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 정려 취득과정, 『장서각』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박 주, 「18·19세기 동래부 영양천씨 집안의 효자 정려 청원과정」, 『사학연구』 85, 2007
- 박 주,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 김동진, 『조선전기 捕虎정책연구』, 선인,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filial sons,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of Kyongsangbuk-Do Province in Chosun Dynasty - Focused on 『Kyongsang-Do-Eup-Ji』(『慶尙道邑誌』) / Park, Joo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filial sons,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at forty-one towns in the Kyongsangbuk-Do province during the Chosun Dynasty wa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Kyongsang-Do-Eup-Ji』 was conducted. Also the inflow of the morality of Confucianism into the Kyongsangbuk-Do area and the regional aspects have been investigated. When the cases of filial sons have been classified, they turned out to be various. Among the classified cases, while their parents were alive, cutting off one's finger or flesh were predominant. After their parents passed away, cases of living in a small-roofed hut near the grave of his parents for three to six years was noticeable.

On the other hand, toward the latter part of the Chosun Dynasty, the number of filial sons increased.

Frequently, within a family of filial sons, there were many more. The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status of filial sons were distinct. Looking at the social status of filial sons, 65% were Yangban, on the other hand approximately 22% came from common people(including soldiers) and slave servants. Regarding the types of rewards awarded, 49% were Chung-ryo or Chung-mun which were most frequent, and the next frequent was "Jeung-jik". Notably, among the government positions given by Jeung-jik the most frequent is "Ji-peong" and in the case of government positions "Chambong" was given frequently.

On the other hand, cases of filial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were limited to only 9% of all the filial persons. At the Chosun Dynasty, for women it was emphasized that "the virtuous deed(烈)" for her husband is emphasized more than "filial piety(孝)" toward their parents which is a Confucianistic view

of feminity.

In terms of regional distribution, the Andong area(安東) had the most filial sons and then the Sangju area(尙州). Here, it can be noted that within the Kyongsangbuk-Do area many filial sons can be found in an area where it is more populated and were the affects of the Yangban were stronger.

Key words: Kyongsangbuk-Do, 『Kyongsang-Do-Eup-Ji』, filial sons, filial daughters, filial daughters-in-law, Chung-mun, Chung-rye.